고흥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세요

7월 20일부터 정부24 앱으로 스마트폰 비대면 조사 실시

고흥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재난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모바일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동일 세대에서는 세대원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여름철 관광시설 안전 이상 무!

보성군은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분기별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시설물별 안전관리카드 구축, 현장 중심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해 잠재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김철우 보성군수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민재해 대상 시설인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예당습지생태공원을 찾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즉시 보수·보강하고, 오는 25일까지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누림문화센터에서 즐기는 여름방학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가죽공예(지갑), 초콜릿만들기(초등, 중고등), 도자기 만들기(접시), 꽃다발 만들기, 나만의 캔들만드기, 마카롱만들기, 토탈공예, 소도구 필라테스, K-POP 방송댄스,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예(초등, 중고등) 등 총 10가지이다.

운영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 동안이다.

모집은 7월 22일까지로, 강의 정보는 해남군청 누리집과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맘카페, 밴드, 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신축된 청소년누림문화문화센터는 1층 해남시네마, 2~3층을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학기별·방학중에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배울거리도 더하고 있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제3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 개최

진도군(군수 이재각)은 지난 15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별관에서 입학생과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진도 군민 리더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서는 수강생 모집을 통해 선발된 40명의 입학식을 진행한 후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수강생들 간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요 교육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진도 군민 리더대학'은 올해로 3기째 운영되는 군민 참여형 교육과정이며, 행정과 군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발전의 핵심 지도자(리더)를 양성하고, 군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리더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부산면, "어르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해요"

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연중 수시로 관내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신상 반찬과, 제철과일, 케익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며 어르신들의 생활여건과 건강 상태,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정서적 지지도 제공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정성과 방문 자체로 큰 의미와 위로가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광님 부산면장은 "취임 후 첫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부산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 성료

선수, 관계자 등 1,500여 명 찾아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둬

'2026 완도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 참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한 '2026 완도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가 선수들의 열정과 관람객들의 응원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틀간 전국에서 각지 선수 500명과 대회 관계자 및 응원단 1,000명 등 1,500여 명이 완도를 찾아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기량에 따라 상급자, 중급자, 초보자 팀전으로 나뉘어 역동적인 레이스와 스쿼트, 철봉, 역도 등을 겨뤘다.

군은 주최 측과 협의하여 시상금 중 일부(1천만 원)로 완도 전복을 구매해 선수와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복의 우수성도 알렸다.

한편 대회 기간 방문객들이 완도에 체류하며 지역 상권을 이용하여 최소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6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대회 운영 결과를 분석해 종목 다변화 및 장소 다각화를 검토하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스포츠대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완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스포츠와 관광,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